

1945년 오키나와

- 김사무엘 선교사 -

오사카 온누리교회 목사, 현 한국 선교부 대표,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

1945년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를 향한 공격을 진행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.

미군들이 반얀 나무와 야자수에 둘러 쌓인 한 촌락에 진입하자 두 사람의 노인이 길에 서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무엇인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습니다.

긴장해서 선두에 섰던 군인은 두 사람에게 손을 들도록 명령을 하고 통역관을 불러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.

이 사람들은 이 미군들이 모두가 크리스천인줄 알고 환영하고 있으며, 한 분은 마을의 촌장이고 또 한 분은 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.

이들이 안내하는 마을에 들어가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고 전쟁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. 그 중 한 노인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.

30년 전 한 사람의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, 시마부꾸로라는 이 마을에 들려, 단기간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이 회심을 하였습니다.

선교사는 그들에게 몇 곡의 찬송가와 일본어 성경을 남겨두고 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당부했습니다.

그 이후로 30년 간 그들은 주위에 아무도 믿는 다른 기독교인이 없기에, 자기 스스로 성경만을 읽고 인도하시는 대로 마을을 운영하여, 지금은 훌륭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놓았습니다.

이 마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첫 회심자가 성경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마을의 모든 규례를 만들었고, 성경 안에서 한 인격을 발견하고 그 사람답게 모든 촌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

그들은 십계명을 그 마을의 법으로 삼았고, 산상수훈을 사회의 도덕으로 삼았습니다.

두 노인중의 한 분인 '키나'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읽게 하였고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.

촌장으로 있는 나카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곧 그 마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.

이 마을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,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,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, 그 결과 감옥이 없는 마을, 매춘이나 술취함, 이혼등이 전혀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.

며칠 후 이 미군들은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. 나카무라 촌장의 집에서 모두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자신들의 특유한 예배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며, 선교사가 남겨준 두 곡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.

우리 찬송가 36장인 “주 예수 이름 높이어”와 48장인 “만유의 주재”였습니다.

그리고 모두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긴 기도시간을 가진 후 마을의 문제들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.

총장인 나카무라는 문제마다 그 회답을 성경에서 얻고자 함께 말씀을 읽고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.

30년 오직 한 권밖에 없는 그 성경을 사용해 왔기에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다 다 찢어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.

오직 한 권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해온 두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.

그 미군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 두 노인은 선교사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.

“이 책을 공부하게! 그리하면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요,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강해질 것이요.”

☉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! - 「온누리칼럼」 제공